

키르기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4. 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198.5천 km ²	G D P	73억 달러 (2013년)
인구	550만 명 (2013년)	1 인 당 GDP	1,327달러 (2013년)
정치체제	의원내각제	통화단위	Som(KGS)
대외정책	실리 균형외교	환율 (달러당)	48.4 (2013)

- 키르기즈는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하여 카자흐스탄, 중국, 우즈베키스탄, 타지키스탄과 접경하고 있음.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(한반도의 8/9), 국토의 90%가 산악지대임.
- 금 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,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어 해외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임.
- 과거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권교체 등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였으나 2011년에 중앙아시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이양에 성공하여 CIS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꼽힘. 현재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3당의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음.
- 1991년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중국과도 경제적·안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구 분	단위: %				
	2010	2011	2012	2013 ^e	2014 ^f
경제성장률	-0.5	6.0	-0.9	9.0	5.0
재정수지/GDP	-6.3	-4.8	-5.9	-3.5	-3.5
소비자물가상승률	8.0	16.5	2.7	6.5	6.6

자료: IMF 및 EIU.

□ 금생산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양상

- 키르기즈는 금 생산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감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음. 2012년에는 키르기즈 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금 생산의 저조로 경제성장률이 -0.9%로 위축됨.
- 키르기즈 최대의 콤토르(Kumtor) 금광 관련 분쟁으로 금 생산량이 40% 감소함에 따라 산업생산이 20%, 수출규모가 12% 감소함.
- 2013년 콤토르 금광 생산회복과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등으로 키르기즈 경제성장률은 9.0%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 2014년 경제성장률은 국제 금가격 하락 등으로 5.0%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□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

- 2012년에는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, 주된 수입원인 금 생산의 감소 등으로 -5.9%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.
- 2013년 재정수지 적자는 콤토르 금광 생산회복에 따른 정부수입 증가 등으로 -3.5%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.

- 2014년에는 금가격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수준인 -3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식료품과 국제에너지 가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

- 키르기즈는 식료품 등의 가격 변동, 국제 유가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침. 2012년에는 정부의 긴축정책과 국내 식료품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.7%로 대폭 둔화되었음.
-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, 숄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.5%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.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숄화 가치하락과 주요 무역상대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6.6%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금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국제 금 시세 변동에 민감

- 산업기반이 부족해 금은 키르기즈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, 산업 생산량의 60%, GDP의 8% 비중을 차지(2012년 기준)하여 금 수출과 국제 금 시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.
 - 2012년 2월, 키르기즈 최대의 쿵토르 광산에서 발생한 10일간의 파업으로 201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-6.8%를 기록(쿵토르를 제외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4.5%)함.

□ 경제의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해당국의 경기 등에 따른 송금액 변동폭 확대

- 키르기즈는 해외근로자 파견(주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)에 따른 송금이 GDP의 25.6% 수준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임.

- 키르기즈의 2013년 1~9월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14억 달러 수준임. 키르기즈에서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숫자는 70여만 명(노동가능 인구의 1/5 이상)으로 추산됨.
- 해외근로자의 송금은 주로 가정 내 교육 및 보건제도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 키르기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나, 주 파견대상국인 러시아의 경기변동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됨.
-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며, 향후 해외근로자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송금제한이 우려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CIS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로 비교적 양호한 투자여건 유지

- 키르기즈는 1998년 CIS 국가 중 최초로 WTO에 가입하는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함.
- 세계은행의 2014년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 키르기즈는 189개국 중 68위를 기록함.
- 전력부문(180위), 국제무역(182위) 및 조세제도(127위)가 매우 취약하나, 재산권 등록(9위), 사업개시(12위), 자금조달의 용이성(13위), 투자자보호(22위)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데 기인함.

다. 정책성과

□ 물가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통화정책 시행으로 거시경제가 비교적 안정적

- 인플레이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0년 9월 이후 매월 인상되어 2011년 12월 13.7%를 기록함.
- 2012년에는 금 생산저조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함.

- 기준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4월 9%, 8월 5.5%, 9월 4.3%를 기록하였으며 12월 3% 미만으로 인하됨.
- 2013년 경제성장률 확대와 통화량 증대로 인해 5월 이후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2013년 11월 중순 4%를 넘는 수준임.

□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서비스 및 규제절차 간소화 등 정책 추진

- 2013년 1월, 키르기즈 정부는 2013~17년 주요 정부정책으로 반부패 정책을 발표함.
- 부정부패는 키르기즈의 고질적인 문제*로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이자 반정부시위의 주된 내용이었음.

* 국제투명성기구(Transparency International)의 2013년 국가청렴도 지수(Corruption Perceptions Index)에서 키르기즈는 177개국 중 150위를 차지함.

- 키르기즈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예정임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 ^e	2014 ^f
경 상 수 지	-394	-571	-1,497	-1,230	-1,011
경상수지 / GDP	-8.2	-9.2	-23.1	-16.9	-13.1
상 품 수 지	-1,202	-1,669	-3,046	-3,408	-3,372
수 출	1,779	2,267	1,921	2,001	2,169
수 입	2,981	3,936	4,967	5,409	5,541
외 환 보 유 액	1,604	1,703	1,903	2,222	-
총 외 채 잔 액	4,449	5,486	5,715	5,923	6,243
총외채잔액 / GDP	92.8	88.5	88.3	81.5	78.0
D. S. R.	12.6	5.6	6.9	14.6	9.1

자료: IFS, EIU 및 CRAM.

□ 1차 상품 위주의 취약한 수출기반과 연료 등 수입 의존으로 상품수지 적자 지속

- 금, 농산물 등 1차 생산물 위주의 취약한 수출기반과 연료, 공산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상품수지는 적자가 지속됨. 2012년에는 금 수출 감소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30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수입증가 등으로 34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 2014년에는 금수출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이나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으로 규모 축소

- 2012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도 GDP 대비 -23.1%인 15억 달러로 크게 악화됨.
- 2013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-16.9%인 12.3억 달러로 소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. 201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축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1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81.5%로 경제규모 대비 과중한 수준

- 키르기즈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 말 17억 달러에서 2013년 말에는 22억 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
- 총외채잔액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2010년 44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59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.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과중한 편으로 2010년 92.8%를 기록한 이후 GDP 증가에 따라 2013년 81.5%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: DSR)은 10%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외채의 대부분은 중장기 채무이며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양허성 자금이 주류를 이룸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중앙아시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이양

- 전임 바키예프 대통령 사임 이후 2011년 10월 대선에서 알마즈벡 아탐바예프(Almazbek Atambayev) 전 총리가 62.5%를 득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중앙아시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실현함.

□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수의석 미확보에 따른 연립정부 구성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지속

- 2011년 12월 사회민주당(SDPK), 공화당(Republika), 아르나미스당(Ar-Namys), 아타메켄당(Ata-Meken)이 연정구성(120석 중 92석)에 합의하였으나, 중간에 공화당이 탈퇴하면서 연정 의석수가 120석 중 69석으로 축소됨에 따라 연립정부의 정치적 안정이 약화됨. 게다가 바키예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야당이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등 정당간 갈등이 계속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정권변동에 따라 남북지역간 갈등이 야기되는 한편, 민족간 갈등도 잠재

- 바키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경제지원에서 소외된 북부 지역의 반발로 2010년에는 정권이 교체되었으나, 2013년 4월 남부의 잘랄라바드에서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현정부의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.
- 또 남부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인이 다수 거주(인구의 14%)하고 있어 민족간 분쟁도 잦은 편임.
 - 2010년 6월 우즈베키스탄계 주민들과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100여명이 사망하고 1,000여명이 부상당함.

3. 국제관계

□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치경제적으로 협력

- 러시아군은 구소련 연방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키르기즈 수도 인근 칸트(Kant)에 군사기지를 유지함.
 - 군사기지 설치의 대가로 키르기즈는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채무탕감(2013년 5억 달러), 군사적 지원(2013년 10억 달러 이상)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, 자국 내 이슬람 세력(인구의 75%) 견제를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- 특히 신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와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 투자계획이 증가하고 있으며, 키르기즈는 2015년까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(Eurasian Economic Union)에 가입할 계획임.

□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양국간 협력 증대

- 2012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에서(Shanghai Co-operation Organization: SCO) 중국이 키르기즈를 포함한 회원국들에게 100억 달러의 추가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중국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.
- 키르기즈가 중국의 신장자치구에 인접하고 있어 중국에게 키르기즈는 완충지대로서 중요한 국가임. 중국은 키르기즈의 2위 수입상대국(2011년 기준, 19.5%)으로 기존의 에너지 부문 외에도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.
- 2013년 9월 중국 시주석의 키르기즈 방문시 정유시설 투자 등 30억 달러 규모 자금지원 계약이 체결됨.

□ 미국과의 군사협력 등 우호관계 약화

-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군수물자 및 병력 수송을 위해 키르기즈 남부의 마나스(Manas) 공항에 공군기지를 설치함.
- 러시아 등의 반대와 국내 일부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미국의 마나스 공군기지는 2014년 7월 폐쇄될 예정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 태도

□ 리스케줄링 경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채무상환 불이행 중

- 과거 파리클럽 등을 통해 두차례 채무재조정을 받음. 2002년에는 1억 달러의 채무를 경감받았으며, 2005년에도 1.2억 달러의 외채 탕감과 4.3억 달러의 리스케줄링을 받음.
- 201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지원잔액은 단기 1,390만 달러, 중장기 3,910만 달러로 총 5,300만 달러이며 중장기 지원잔액 중 89.3%인 3,490만 달러가 연체 중이며 회수불능 상태임.

2. 국제시장 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- OECD는 키르기즈의 신용등급을 7등급(최하위)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S&P, Moody's 및 Fitch 등 주요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은 키르기즈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음.

* OECD : 7등급(2012. 1) → 7등급(2013. 1) → 7등급(2014. 1)

□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: 인수불가(No cover available)
- 영국 ECGD: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, 제한적 중기인수 (ST cover subject to CLC, restricted MT cover)
- 독일 Hermes: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(Restrictions will apply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3> 한·키르기스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11	2012	2013	주요품목
수 출	142,069	161,927	163,923	편직물, 자동차, 합성수지
수 입	2,110	211	549	산식물, 기호식품, 기구부품
교역규모	144,179	162,138	164,472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국교수립: 1992년 1월 31일(북한과는 1992년 1월 21일)

□ 주요협정: 문화협정('97), 관광협정('06), 항공협정('07), 경제협정('08), 투자보장협정('08),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('11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우리나라의 대 키르기스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, 대 키르기스 수입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미미한 수준임. 대 키르기스 수출 증가에 따라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1년 1.4억 달러에서 2013년 1.6억 달러로 확대됨.
- 우리나라의 대 키르기스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9월말 기준 62건, 8,519만 달러(누계 기준)를 기록함.
 - 업종별로는 건설업(투자금액 3,409만 달러)과 광업(1,750만 달러)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제조업 순임.

V. 종합 의견

- 2013년 경제성장률은 금 생산의 회복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따라 9%로 추정됨. 2014년에는 국제 금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%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- 재정수지는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음. 또한, 해외근로자 송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역시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함.
- 사회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연정의 낮은 의석수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2015년 총선까지 지속될 전망됨.
- 총외채규모는 경제규모 대비 과중한 편이며 OECD 회원국 ECA의 중장기 지원잔액 중 89.3%가 연체중에 있는 등 외채상환태도도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임.

선임조사역 김찬수(☎02-3779-5703)
E-mail: avik@koreaexim.go.kr